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2. 16(금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안보정책과장 정용욱 해군 중령 윤용권 (Tel. 044-200-2123)
* 엠바고 : 12.16(금) 14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	

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굳건한 군사동맹

- 황 권한대행, 연합사령부 방문, 북한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태세 당부

□ **황교안 권한대행**은 12월 16일(금) 오후, 한미동맹의 상징이자, 대한민국 방위의 초석인 **한미 연합사령부**(서울 용산구 소재, 연합사령관: 美 대장 빈센트 브룩스)를 방문하였다.

* (참석) 국방부 장관(한민구), 연합사령관(빈센트 브룩스 대장, Vincent Keith Brooks), 연합사 부사령관(임호영 대장), 국가안보실장(김관진), 국무조정실장(이석준), 주한 美대사(마크 리퍼트) 등

○ 이번 연합사 방문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위협 속에서 **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적으로 재확인**하고 **굳건한 안보태세를 점검**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,

○ 연합사령부 지휘관들이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흔들림없이 **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**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**황 권한대행**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,

○ 북한의 핵능력이 현실화·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, 최근에는 청와대 타격훈련 등 잇따른 무력시위성 훈련으로 **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증대**되고 있다면서,

○ 북한이 유엔 안보리결의 2321호와 한·미·일 각각의 독자제재 발표* 이후,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돌파구 마련과 우리軍의 대비태세 확인 등을 위한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언급하였다.

* 독자 대북제재 발표일(한국시간 기준) : 한국(12.2), 일본(12.2), 미국(12.3)

- 또한, 한미동맹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면서,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한미동맹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고, 지난 60여년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 도발을 억제해왔다고 평가하면서,
-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군사 동맹이며, 연합사령부 한·미 지휘관들이 서로 단결하는 것이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강조하였다.
- 한편,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9일 밤 9시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를 주재하였고, 12월 11일 오후에는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는 등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.